

齒科醫療管理學概論 — III —

大韓齒科醫療管理學會

會長 崔 在 京

II. 齒科醫療管理를 左右하는 條件

齒科醫業을 生業으로 營爲해나갈때 齒科醫療內部的 條件이 아닌 社會나 經濟狀態에 依하여 크게 影響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먼저 記述한 것 처럼 齒科醫療管理라는 側面은 이와같은 社會條件이나 經濟狀態의 改革等を 다루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주어진 條件下에서 어떻게 合理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가를 取扱하는 立場을 지닌다.

換言해서 例를들면 現在の 自由主義經濟社會下에 있어 社會保險制度가 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 있어서 齒科醫療를 어떻게 進行시켜야 하는가 라는 主題가 齒科醫療管理가 다르워지는 것이다.

社會保險制度를 改革하거나 社會經濟狀態를 어떻게 變化 시키면 좋은가 醫療制度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問題는 實은 벌써 齒科醫療管理의 것은 아니다. 이것을 取扱하는 것이 社會齒科學 Sociol dentistry의 領域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 齒科醫療管理를 取扱하여 가는에는 이와 같은 齒科醫療가 現在 해나가고 있는 여러가지 條件에 對하여는 正確한 把握이 必要한 것이다.

齒科醫療管理의 技術的인 部分은 外國에 것을 많이 받아들리는데 있다하더라도 齒科醫療管理를 適切하게 다루워가는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現在 놓여있는 諸般條件을 올바르게 보지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認識이 缺乏되어서는 現實 齒科醫療를 生業으로해서 國民齒科保健向上에도 貢獻하고 더욱이 齒科醫 自身도 福祉를 바랄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社會科學과 齒科醫療管理의 接點이 있고 또 豫防齒科學 또는 公衆齒科保健과의 接點도 되는 것이다.

1) 國民의 齒科保健狀態

齒科醫療가 國民 齒科保健向上을 爲하는 以上 國民에 齒科 保健狀態는 極히 크나란 關係가 있다. 이들에 對하여 有力한 資料를 提供하는 것은 個個 齒科疾患에 對

한 知見이 아니고 疫學的인 知見 epidemiological information이다. 이에 對하여 口腔保健學에서 取扱하나 여기서 거듭 이것이 어떠한 形態로 需要 demand로서 나타나고있는가가 問題가 된다. 直接的으로 이러한 demand의 變化는 來院患者數로 測定할수있으나 우리가 調査해야할것은 醫療施設調査 及 患者調査 齒科醫院의 一日 平均 取扱 患者數이다. 一般으로 어떤 疾患의 醫療 需要 顯在化의 度는 $J \cdots \cdots$ 受診率 $R \cdots \cdots$ 罹患率 $\alpha \cdots \cdots$ 係數라했을때 $\alpha \frac{F}{R}$ 로 求하여진다.

이와같은 것을 學校保健所等に 推定하여 보며 거듭 年間 齒科疾患推移等を 考慮하여야한다. 即 國民齒科醫療需要의 構造가 變化해 오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은 齒科醫療管理에 크게 影響을 주는 것이다. 이點에서 疫學的 知見이 잘把握되어 지지않으면 안된다.

2) 國民의 生活水準

醫療 또는 齒科醫療에는 需要가 優先한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個個의 經濟力社會의 經濟狀態의 支配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오히려 이같은 優先性을 어떻게 處理해야 좋을가 干先 醫療費의 公共扶助 Social assistance가 되어야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國民稅所得에 對한 醫療費의 占하는 比率이 많은 나라에서 比較의 一定 範圍 가운데서 始作되고 있는 것으로도 觀察해 볼수 있는 것이다.

分配國民所得과 總醫療費와의 年次推移國民保健의 動向을 明確하게 把握해보면 經濟力과 齒科醫療로 生覺하는데 그대로 보아 넘길수 없는 影響力을 示唆하게 될 것이다.

3) 國民의 保健知識水準

齒科醫療 需要는 疾患의 特性에서 經濟條件과 知識水準에 多少 parallel가 되어있다고 想像할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新聞 라디오, TV等に 取扱이 거의 全無한 狀態로 緊急이 是正되야 하겠다.

또 齒科醫院에서 어린小兒가 歡迎을 받지 못하는 것도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이와같은 것이 齒科醫療需要에 여러가지 形態로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은 確實하다

如何問 여기서 重要하다고 말할수 있는 것은 大衆이 齒科保健 問題에 對한 Need를 아는 것이다. 어떠한 일을 齒科醫나 其他 사람들에 期待하고 있나를 아는 것이 極히 重要하다하겠다.

4) 齒科醫療 關係者의 數와 分布

過密과 過疎 問題는 우리나라 社會에서 하나의 크다란 問題이고 이에 關聯하여 醫療나 齒科醫療 問題도 이러나고 있다. 全體로서의 齒科醫師數가 어느 程度가 適切한가는 많은 因子가 있어 究 決定할 수는 없다. 齒科醫育機關數 地域의으로 본 醫師數와 動向 齒科補助員의 狀況等 適正한 構成比率에 對한 檢討가 되어 있지 않다.

或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施設에 連結되어갈 保障은 없는 것이다.

5) 制度 法令

開業醫制가 中心으로 行하여지는 病院의 役割은 齒科醫療에 特別한것은 없다. 오로지 齒大附屬病院은 齒科醫育에 있어서 病院의인 役割이될 程度이다.

總合의인 保健對策에서나 具體性도 貧弱하다. 齒科醫療에 對한 法令도 사람에 關한것으로는 齒科醫師法 齒科技工士法 齒科衛生士法 場所에 關한것으로는 醫療法 齒科技工法이나 其他 施策이나 其他 法律가운데서 行하여지고 있다.

母子保健法, 學校保健法 勤勞基準法 保健所法等이 있다. 齒科 保健基本法과 같은 것에 制定이 必要하다고하나 具體化에는 아직 멀다.

6) 醫療의 社會化

保險制度下에서 齒科醫療은 무엇이든 이에 影響을 받지 않을수 없다.

社會保險醫療制度는 元來 醫療費 支拂方法에 對한 制度이고 醫療內容을 規制하는 制度가 아닌것이다. 가까운 日本에 경우 모든 醫療에 對하여 醫療費를 充分히 支拂하는 것이 아니므로 事實上 全然 自由로운 醫療施行이 防害되고 있으며 이 制度의 大部分은 國民에 쫓기므로 齒科醫療 運營大勢를 決定하는 것이 된다. 日本의 制度는 費用 自體를 患者에 支拂하는 方法이 아니고 醫療서비스 自體를 給付하는것이라 所謂 現物 給付라는 方法에 依하므로 더욱이 內容의 規制가 直接問題가 된다. 이것이 保險者와 醫療擔當의 約束에 依하여 規制되게 되었으나 이를 “社會保險 醫療擔當 規定”이라 부르고 있다.

後에 記述하겠으나 Lexis의 法則을 滿足하질수 運營하기 위하여 限定된 財源으로 넓은 範圍의 齒科醫療에 對한 費用을 支拂하려 하기 때문에 比較的 낮은 內容의

齒科醫療를 無理한 報酬額으로 給付하게끔 決定한데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規制는 保險者 被保險者及 醫療擔當者의 代表가 모인 社會 保險醫療協議會라는 機關에서 討議하게끔 되었으나 각급 그 機能의 中斷 또 여러가지 條件의 變動에 對한 適應이 늦어져 feed-back이 나빠진다고 한다. 이것도 實際 問題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問題點은 一物一價 原則에 依하여 하나의 Service에 報酬額이 一定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內容에 따르는 評價가 全然 醫療를 行한 以外는 所爲技術差가 反映되지않는다는 것이 이 制度運營을 위태롭게하는 要素라니 우리도 앞으로 實施에 앞서 考慮해 두어야 할것이다. 또 一面 倫理 問題의 有効한 解決이 서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이것이 醫療의 質과 連結되는 것을 生覺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7) 齒學의 水準

齒科醫療管理를 左右하는것으로 齒科醫學이나 齒科醫師의 水準이 있는 것은 當然하다. 새로운 方法 手段의 器械의 導入은 여러가지 變化를 招來하게된다. 또 齒科教育 內容의 變化도 當然하게 커다란 影響을 줄수 있다.

특히 齒牙나 口腔 機能에 注目을 끌수 있는 것도 全體에 크게 影響을 준다.

Ⅲ. 齒科醫療管理의 基礎

齒科醫療管理란 여러번 記述한것처럼 資本主義體制下에서 特異한 性格을 지닌 齒科醫療를 生業으로써서 合理的으로 對處해가는 方法을 取扱하는것이다.

一般的으로 資本主義體制下에서 무엇인가 事業을 合理的으로 한다는것은 그대리 利潤追求를 뜻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따라서 齒科醫療管理도 이를 事業이라는 側面만을 드러서 合理化 能率化의 手法을 取扱하는 것을 生覺한다면 齒科醫業에 있어서도 利潤追求의 手法을 取扱하는 것이라 生覺할 수도 있다. 그러나 齒科醫業이란 一般의 事業과는 몇가지의 달리하는 性格을 지니고 있고 齒科醫療의 本質에 關한 性格 喪失은 벌써 그것은 齒科醫療管理란 이름을 부칠수 없게 될것이다. 齒科醫療에있어서 經濟的 側面을 굳히 면서, 齒科醫療 本質에 依하여 서는곳에 齒科醫療管理의 意味가 있다. 그대리 單純한 利潤普及의 手段만은 아니라는데 齒科醫療管理를 取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齒科醫療 本質에 連繫되는 다음 3가지 點을 要約할 수 있다.

- ① 醫療倫理에 確立
- ② 齒科醫學에 對한 바른 認識
- ③ 適切한 齒科醫術의 手段

어떻한 경우라도 齒科醫療管理에는 이 3點을 喪失해서는 成立하지 않으며 이것이 缺餘 되어서도 이 모든 뜻이 없어진다는 것을 銘記하지 않을수 없다.

1) 醫療倫理의 確立

齒科醫療가 行하여지는 곳에서는 患者는 醫師에 無條件의으로 따라야된다.

이것은 物件이나 서비스가 따르는 賣買 請負와 多少 다른 面이고 또 이것은 他律의인 規制가 아니고 齒科醫師와 患者와의 人間的 接觸으로 任意的 處理되지않으면 不된다. 人爲的으로 만든 法令이나 慣習以前의 內面的인 自制가 齒科醫師에 要求된다.

勿論 法的으로도 他 職種에 없는 여러가지 義務가 지워져 있지만 이와같은 모든것을 醫療倫理라고 부른다. 醫療倫理란 오로지 文章이나 裝飾으로가 아니고 底流로서 恒常 齒科醫療 가운데 흘러야 한다.

外國 大學의 臨床實習의 注意事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恒常 自己가 가진 最高의 能力과 最高의 判斷力을 가지고 診療에 臨할것.

ii) 恒常 患者의 苦痛을 除去한다는 것을 生覺할것.

iii) 어떻한 意味에서도 患者를 差別하지 말것.

iiii) 機會있을 때마다 患者의 健康增進을 爲해 努力을 아끼지 말것.

v) 自己가 배운것은 恒常 實行할 勇氣와 確信을 가질것.

이것을 着實하게 몸에 지닌다는 것은 大端히 어렵다 모두 自己 自身의 問題로 處理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處理하는 힘은 他에 주 워지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外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醫療倫理의 嚴格함이 있다하겠다.

2) 齒科醫學에 對한 바른 認識

齒科醫療란 國民大衆의 齒科保健向上을 目標로 하며 여기에 서야할것이 人間愛라는것은 먼저 記述한바이고 그것은 諳意的인것이 아니고 普遍的인 것이 아니면 不된다. 이런 뜻에서 科學이 아니면 不된다. 이것이 齒科醫學이다. 그러나 齒科醫學은 單純한 知識의 集積이 아니고 恒常 應用을 노린 科學이다. 이같은 齒科 醫學의 內容은 他 自然科學 分野의 知見이나 擴充에 따라서 變化하여 간다. 따라서 齒科醫學은 齒科醫療에 依해 驅使

된다. 齒科醫學의 應用面으로 齒科醫療가 있는것이 아니고 齒科醫療를 보다 잘 해가기 위하여 齒科醫學이 있는 것이다. 또 齒科醫學 分野에서도 比較的 生物學에 가까운 分野가 있다. 이같은 것을 基礎齒學—basic dentistry라 부른다.

여기서는 生命을 sein으로써 取扱하는것이 아니고 Sollen 으로 取扱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應用科學—applied science 이고 所謂 基礎科學—自然化學은 아니다. 보다 生物學的의기는 해도 生物學 그自體는 아니다 이같은 基礎齒學에 對해臨床齒學이라 부른다. 이는 單純이 術이든가 方法같은 것을 指稱함이 아니라 實際 應用을 노린 知識의 體系이다.

科學의 또는 生物學인래는 變함이 없으나 오로지 臨床 應用에 가깝다는것 뿐이다. 齒科教育分野는 便宜上 여러가지 分科로 나누워지나 오히려 이를 Dental biology 라는 形態로 매듭 지으려한다. 이같이 나누워지는 것은 各各 特有한 研究, 方法論을 가지고 있다. 이 뜻에서 方法論 그 自體도 차츰 總合의이 되여온 것이다. 어느 것이든 이같이 生物學的의 知識에 着實하게 나타난 齒科 醫療가 必要하며 生物學的의인 分野는 깊고 넓어지므로 끊임없는 研究와 后教育에 依해서 齒科醫療에 對한 正確한 知見을 自身의것으로 해야할것은 두말할 必要가 無겠다.

3) 齒科醫術의 手段

齒科醫療란 하나의 實踐이므로 知識體系로서의 齒科 醫業이 아무리 豊富하드래도 그것이 무엇인가 手段을 通해서 배풀어지지 않으면 齒科醫學의 그 意味가 거이 喪失해 버린다. 이것이 齒科醫學에 있어서 殊히 臨床的 研究라 불리워지는 커다란 하나의 問題點이요. 齒科臨床에서 研究成果로 살려 나갈때에 問題點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齒科醫術이란 손끝에 재간만이 아니다. 올바르게 알고 適切한 齒科醫術을 自身에 것으로 만든다는 上記한 3가지 點은 查된 뜻에서 齒科醫療이며 가장 根本的인 條件이라 할수 있다.

이와같은 基礎條件을 가추지 못한 경우 有效한 齒科醫療管理의 手段도 그대로 齒科의手段 이어가는 適業으로 所用의 當는 役割을 當하지 못할 것이다. 齒科醫療管理가 兩刃의 劍이라 하는 所似가 여기에 있다.

(다음 號에는 齒科醫療管理의 方法論 揭載)

남비하고 후회말고 있을때 저축하자